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씀 하나에 하루 하루가 즐거운 나날

本性은 佛性이다

세계불교교황청
청장 대승통 능인 스님



우리의 본성은 바다와 같은 것이다. 단지 인연따라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칠때 하얀거품이 발생하듯이 우리도 인연따라 사람 몸으로 태어나고 거품이 꺼지듯이 우리 육신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육신은 거품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 본성은 바다와 같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불성인 것이다. 불성이 노도와 같은 힘으로 거품과 같은 육신을 삼킨다면 누구나 육신성불이 되는 도다.

물과 같이 마음을 쓰자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맑아집니다. 마음도 물과 같습니다.

주변을 향해 따뜻함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변과 나누면 나눌수록 깨끗해집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아상을 버리면 저절로 나누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저절로 생기가 돌고, 건강해지니 이것이 장수무병의 근원이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전한 가르침의 근간은 결국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새해 불자들 각자가 자비심으로 나서고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화합의 신명 펼치자

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정림 스님



밝은 희망과 상극의 어두움이 교차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갑진년 새해에는 온 세상에 모든 계층의 국민이 화합과 상생의 잔치 마당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증폭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어울려 신명을 펼치는 축제가 되고,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게 설계하는 희망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해에는 더욱더 온 누리에 대자비와 공덕을 베풀어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희망을 갖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연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관심을 기울입시다. 새로운 태양을 보며 희망의 씨앗이 싹틈을 함께 느낍시다.

함께 상생하는 사회 이루자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혜지 스님



나를 낮추는 곳에 평화와 평등이 있습니다. 상대를 높이면 상생과 화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만과 이기심의 산물로 하심과 공경만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류의 평화는 나를 돌아보는데서 시작하고, 주변을 살피는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수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로 이르는 이러한 이치를 모두가 깨달아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분별 떨치는 한해로 삼자

한국불교선교종
종정 경보 혜만 스님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초월하라는 큰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선악의 구분은 바로 분별심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여본성의 자리에서 보지 않고, 중생의 입장에서 보니 분별이 나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분별심을 버리는 한해를 만들어 봅시다.

이미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인 도리를 부처님께서 설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인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곳곳, 그리고 사회 곳곳이 힘들 때 불자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차분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자신의 본분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생활 속 진리 찾는 한해로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수많은 공덕이라도 마음에 불을 한번 일으키게 되면 그동안 닦은 공덕은 모두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성내는 마음을 낼 때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성내는 마음을 통해 열린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상처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새해에는 생활 속에서 마음에 한번 불이 일어날 때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심을 내는 기회로 삼아봅시다. 새해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함께 얻기를 기원합니다.

시비 끊는 마음정진을

전통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스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묵은 때를 벗고 청정한 기운으로 주변과 행복을 나눕시다. 한 생각이 잘못되게 일어나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이 날 때 끊는 수행을 해봅시다.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것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리는 수행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의지하며 올곧게 정진한다면 주변이 평안해지고 세계가 평화로워 질 것입니다.

중생 고통을 소멸하리라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大慈大悲 佛身明
(대자대비 불신명)
色相無邊 極淸淨
(색상무변 극청정)
光明所照 感歡喜
(광명소조 감환희)
衆生有苦 悉除滅
(중생유고 실제멸)

본래 부처님 법신은 밝고 대자대비하시므로
색도 형상도 없고 끝없이 청정하니,
그 빛은 처처에 차별없이 비추니 곳곳마다 기뻐하고
따르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해 주리라.

겸손과 하심의 공덕 쌓자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愚心不學增憍慢(우심불학증교만)
癡意無修長我人(치의무수장아인)
空腹高心如餓虎(공복고심여아호)
無知放逸似顚猿(무지방일사전원)
所願成就(소원성취)이니라

미련해서 배우지 않으면 교만심만 늘어나고 어리석어서 닦지 않으면 잘난 척만 하게 된다.

속은 비고 마음만 높으면 주린 호랑이와 같고, 아는 것 없어 놀기만 하면 넘어진 원숭이와 같으니 겸손과 하심이 곧 소원성취이다.

삼라만상 깨는 기쁨 함께하리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는 모두 불성이 있고, 그 자체로 부처입니다. 이러한 불성을 삼라만상이 깨어나는 기쁨을 찬란한 황금빛 붉은 해가 동녘 하늘을 물들이고 천지를 개벽할 때 느껴봅시다.

내 안의 부처가 느껴지고 세상에 큰 웃음소리 울리니 만상이 한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새해는 청룡의 해라고 불립니다. 용이 솟아오르는 빛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한 해를 맞이합시다. 영원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온 가정에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마음 살피는 서원 올립니다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무명이 가시고 진리를 밝히는 갑진년 새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탐욕과 무명의 허망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의 초입입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보면 타인의 마음도 살피게 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한다면 새해에는 희망만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서로를 밝히는 서원을 해나갑시다. 갑진년 불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인생의 대광명을 얻기를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한 불자가 사업 실패로 죽음을 각오하고 계곡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을 보는 순간 청아한 물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위 밑에 떨어진 물에 맴도는 하얀 물거품을 보고 그는 '인생은 물거품과 같구나'고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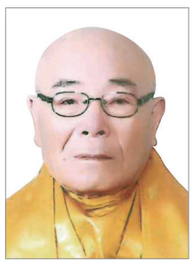
불자들이여!

當觀水上泡(당관수상포) 亦觀幻野馬(역관홍야마)
如是不觀世(여시불관세) 亦不見死王(역불견사왕)

물거품 같이 인생을 보며 아지랭이 같이 세상을 보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보지 않고 대광명이 열리게 됩니다. 갑진년 푸른용의 새해에는 불자님의 꿈과 소망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갑시다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수암 스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서로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이 여지없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끄달리는 것이 바로 번뇌 집착의 시작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복덕을 쌓아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안내자 이실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혜봉 스님



훌륭한 의사가 병을 알아서 약을 주었는데도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좋은 길로 인도하였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독감이 극성입니다.

불자님 가정과 함께 전 세계가 그늘진 곳에서 고통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가 두루 하시고 갑진년 밝은 안목으로 발돋움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나서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는 자신을 바로보는 성불입니다.

오직 마음 속의 갖춰진 자기 자신을 찾고 이를 강성하는 것이 해탈과 열반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로 갈등이 확산되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바로 집착입니다. 번뇌와 집착을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것을 바로 알고 스스로 그러한 고리를 끊어 봅시다. 여기에 보살도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해봅시다.

불자 모두가 자성을 밝혀 상구보리 하화중행 정진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영원의 등불 함께 하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未了心源度數春(미요심원도수춘)
翻嗟浮世譾逡巡(번차부세만준순)
幾人得道空門裡(기인득도공문리)
獨我淹留在世塵(독아엄류재세진)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기를 몇 해를 보냈는가. 도리어 세상에 부질없이 머뭇거린 것을 슬퍼하고, 여러 사람이 공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었거늘.

유독 나만이 세상 티끌 속에 오롯동안 머물렀다는 것이다. 세세 년년 밝게 비추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마음법 익히면 날마다 좋은날 입니다. 일체 중생에 갑진년 한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